

## 제3절 새 시대, 새로운 방송 SBS TV 개국

### 1. 12월 9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디오 개국은 각계에서 영입된 임직원들을 결속시키고 힘을 실어주었다. 잇단 철야근무에서 오는 피로도 잇은 채 임직원들은 TV 개국을 위해 다시 허리끈을 졸라맸다.

인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였다. 방송계의 쟁쟁한 인사들이 영입되어 경륜을 펼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력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었다. 방송사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기구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KBS, MBC 양사와 길고 힘든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했다. 영입 대상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양대 방송사와 「인력 스카우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1991년 2월 26일이었다.

개국 준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사적 지원

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1991년 4월 1일에는 TV개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표재순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는 8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친 개편을 거쳐 TV 개국 준비를 마무리했다. 준비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정기 회의를 열어 개국 준비업무 진척 상황을 논의하고 조정했다. 또 상황실을 설치하여 모든 업무를 종합 관리하고 보고체계를 단일화했다. 준비위원회 산하 TV제작시설건설팀은 TV제작센터와 스튜디오 건설업무를 전담했다.

7월 22일, TV 개국일을 12월 9일로 최종 확정했다. 앞으로 140일! 사내 곳곳에 '12월 9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표어가 나붙었다. 임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7월에 공개 모집한 신입사원들이 여러 단계의 전형을 거쳐 입사한 것은 9월 1일이었다. 공채 1기 사령장을 받은 신입사원은 모두 31명이었다. 9월 25일에는 2차 경력

사원을 공채했다. 113대 1이라는 높은 경쟁을 거쳐 입사한 경력사원은 모두 23명이었다. 이로써 기획단이 개편했던 직제를 가동할 수 있는 1단계 인력 구성이 완료되었다.

인력 확보가 일정 목표에 도달하자 사원 해외연수를 계획, 실시했다. 해외의 최신 방송 기술을 익히고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해외연수는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실시되어 거의 전 사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연수 또는 견학을 다녀왔다. 이 연수 효과는 임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 SBS가 짧은 기간에 선발 방송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사무용 건물을 방송에 적합한 연주소로 개조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일이었다. 그리고도 모자라 쇼나 드라마 같은 대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외부에 별도 스튜디오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건설팀은 3층부터 6층까지 스튜디오와 기술 관련 부서를 집

중 배치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필요한 부분은 층을 터서 사용하기로 했다.

각종 방송장비 도입 및 설치에는 최신 장비, 최신 기법 도입 방침을 세웠다. 심익섭 기술이사와 원종화 연구개발부 차장은 서울올림픽 국제방송센터 설계 및 운용 경험을 살려 디지털 송출 방식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을 도입했다. 자동 편집시설도 신기술 도입의 일환이었다. 신설 방송사의 특장을 이용하여 최신 모델의 자동 편집시설을 도입, 사용함으로써 기존 방송사의 3분의 1 정도 인력으로도 고품질 화면을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었다.

중계장비 도입도 매우 중요한 업무였다. 중계방송은 생생한 현장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특성으로 인해 TV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대형중계차 2대, 중형중계차 1대, 소형중계차 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모든 장비가 도착한 것은 11월 5일이었다. 기술팀은 즉각 시스템 운용을 위한 테스트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장비를 사용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동 및 관리 교육에 들어갔다.

1990년 12월 19일, 정부 각 부처 관계자, KBS 관계자 및 SBS 심익섭 기술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보처에서 송신시설 관련 회의가 열렸다. 논의 끝에 KBS와 MBC가 FM방송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는 남산 서울타워 종합전파탑 4층을 SBS송신소가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91년 5월 1일, SBS는 서울타워 관리주체인 체신공제조합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송신소 시



본사 사옥과 여의도광장을 장식한 SBS TV 개국 현수막.

설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타워 3층과 4층에 1차로 송신소 건축 및 전기 설비 공사를 마친 것은 4개월 뒤인 9월 중순이었다. 공사 도중에 발주했던 송신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는 우여곡절 끝에 납기에 맞춰 들어왔다.

송신기, 콤파이너, 송신 안테나 및 케이블, 마이크로웨이브, 로테이터 등 주요 장비를 개국에 맞춰 설치 완료하기 위해 연일 철야작업이 이어졌다. 개국을 며칠 앞둔 시험방송에서는 화면에 다중상(多重像)이 발생하여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원인을 찾아 개선 공사를 마치고도 모자라, 건설팀 직원들은 개국 전날인 12월 8일에도 하루 종일 매서운 강풍이 몰아치는 서울타워 철탑에 매달려 마지막 조정작업을 했다.

그때 밤샘 작업을 진두 지휘했던 변장부 소장은 타 방송사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칭 '외인부대' 23명을 이끌고 남산송신소를 비롯한 4개 송신소와 8개 간이중계소 운영과 유지 보수를 전담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SBS가 제작한 모든 프로그램을 한 치 오차도 없이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있다.

관악산중계소 공사는 자재와 장비 운송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KBS 삭도로는 엄청난 물량을 소화할 수 없었고, 산세가 워낙 험준하여 달리 운반할 방도도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운송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그 비용은 자재 값의 몇 배나 상회했다.

식수마저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를 거듭하며 진행된 공사는 1993년 11월 15일에야 마무리

되었다.

스튜디오 확보도 TV 개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었다. SBS는 운현궁스튜디오, 양평동스튜디오, 비비아트홀 등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자체 스튜디오 건설도 추진해나갔다.

국내 방송사 가운데 최초로 디지털 송출 방식을 채택한 주조정실 장비 설치가 끝난 것은 10월 28일이었다. 윤세영 사장 주제로 가동식을 마치고 그 날부터 사내 CATV 채널을 통해 연습방송에 들어갔다. 편성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2주간에 걸친 연습방송을 진행하면서 관련 부서별로 기술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갔다.

마침내 그 날이 밝았다. 12월 9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표어를 내걸고 전쟁을 치르듯 개국을 향해 돌진해왔던 1991년 12월 9일, 바로 그 날이었다. 사옥 여기저기서 마지막으로 맡은 업무를 점검하는 임직원들의 가슴속에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일각일각 개국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0시 정각. 윤세영 사장이 전파 발사 버튼을 눌렀다. 채널6, SBS TV 화면을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창사 1년 만에 TV방송을 실시함으로써 SBS가 명실공히 종합 방송사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다.

민주화로 나가는 역사의 문 앞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향하는 대변혁의 출발점에서, SBS는 파행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오랫동안 위축되어 왔던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새로운 방송문화를 창출하는 주역을 자임하고 나



왼쪽 | 관악산송신소 건설 현장 시찰.  
오른쪽 | 1991년 12월 9일 역사적인 TV 개국 전파 발사 버튼을 작동하는 윤세영 사장.

선 것이었다.

주조정실을 가득 메우고 있던 임직원과 국회, 정부, 국내외 언론계 인사 등 내외 귀빈, 그리고 각 언론사 보도진은 뜨거운 박수로 SBS TV 개국을 축하했다. 각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던 사원들도 힘찬 박수와 환호로 TV 개국을 자축했다.

이 순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했던 지난 1년 간의 노고가 한순간에 봄눈 녹듯 사라졌다. 같은 시각, SBS TV 가시청권인 서울, 경기 전역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 주민들도 새 민영방송 개국을 지켜보며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개국 특집방송이 이어졌다. 연주소를 건설하고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외부 스튜디오를 확보하는 사이 알차게 준비해왔던 특집 프로그램 「탄생! SBS TV」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공수특전단 낙하산병들의 화려한 고공 낙하로 시작된 「탄생! SBS TV」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축시 낭독을 거쳐 윤세영 사장의 개국 인사로 마감됐다. 윤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방송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어 각종 개국 특집 프로그램이 오후 8시까지 계속된 뒤, 메인 뉴스의 통념을 깨며 개국 전부터 화제를 집중시켰던 「SBS 8 뉴스」가 방송됐다. 개국 첫 드라마 「고래의 꿈」과 특집 다큐멘터리 「서울 영상 리포트」로 개국 첫날 방송을 마감하면서, SBS는 성공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간 건강한 사회를 이끄는 새 시대의 전력으로 자리잡았다.

## 2. 새 방송, 새로운 프로그램

### 차별화 편성의 대명사 「SBS 8 뉴스」

SBS가 출범하기 전 민영방송 설립을 반대한 일부 언론이나 이익단체들의 주된 명분 가운데 하나는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였다. 민방이 등장하면 오락물 위주의 저질 퇴폐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양산될 것이라는 예단이었다. 이러한 여론은 신생 SBS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SBS에 대한 평가가 훗날 다른 민방 출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제작진을 압박했다. 이러한 외부 시각에 대해 SBS는 다양한 편성 전략으로 대응해 나갔다.

외주제작 비율을 높인 것은 프로그램 제작원의 다원화를 지향하는 차별화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SBS의 초기 외주제작 비율은 6.6%로서 이는 공보처 권장 비율인 3%를 넘어 TV 3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체 제작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원의 다양화, 외부 프로덕션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창사 초기부터 SBS는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보도를 지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초기 보도 전략은 차별화였다. 「SBS 8 뉴스」는 차별화 전략의 대명사로서, 30년 가까이 익숙해진 시청자들에게 청량한 파문을 던졌다. 「SBS 8 뉴스」는 타 방송사보다 1시간 먼저 종합뉴스를 방송함으로써 시청 형태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후 뉴스 주시청층인 30대 이상 직장 남성들의



왼쪽 | 1991년 12월 9일, SBS는 창사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1년 만에 TV방송을 시작했다.  
오른쪽 | SBS TV 개국축하음악회.